

해남산 바나나 첫 수확...한반도 작물지도가 바뀐다

북평면 재배농가 0.4ha서 12t...연간 25t까지 늘리기로 친환경농법 맛과 향 탁월...수입산보다 소비자 선호도 높아

해남에서 재배한 바나나가 처음 수확됐다. 동남 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나나 수확이 해남에서 이뤄진 것이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북평면 와룡마을 신용군 씨 농가에서 지난 13일 '망갈 바나나 수확 축제'가 열렸다.

신씨는 지난해 0.2ha 면적에 470여주의 바나나 나무를 식재, 1년 만인 이날 첫 수확을 시작했다.

행사에 참석한 명현관 해남군수와 해남군의회, 전남농업기술원·농협 전남본부 관계자 등은 아열대 재배단지를 돌아본 뒤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 특성을 비교하는 바나나 품평회를 열었다. 바나나 식미 평가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나나 카나페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올해 해남에서는 신용군 씨 농가를 포함해 2농가 0.4ha 면적에서 12t의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바나나 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1ha까지

확대하고, 연간 25t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바나나는 정식 후 1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생육이 좋을 경우 2년에 3회 정도 수확한다.

국내산 바나나는 나무에서 충분히 성숙한 뒤 따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검역 시 살균 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바나나는 전체 수입과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산 비중은 0.3%에 불과하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해남군은 여주 등 아열대 채소를 비롯해 패션프루트, 체리, 애플망고, 블랙커런트 등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농가에 보급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공리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해남지역 아열대작물의 재배 면적은 무화과 23ha를 비롯해 참다래, 부지화, 여주 등 125ha로 전남지역 최대 규모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에서 바나나가 생산되는 등



명현관(왼쪽) 해남군수가 지난 13일 북평면 와룡마을 신용군(오른쪽)씨 농가에서 바나나 첫 수확을 돕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한반도의 작물지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 아열대 작물을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해남을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연구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화산면 '75년 전통' 축제 광복절 축구대회...코로나로 취소

"6·25 전쟁과 1995년 대가뭄, 세월호 참사 등 몇 차례를 제외하고 어김없이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합니다."

해마다 8월15일 광복절이면 열리던 해남군 화산면 광복절 축구대회가 올해는 취소됐다.

17일 화산면체육회에 따르면 올해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고 지역사랑 나눔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명절 때는 못 와도 광복절 체육대회는 참석한다"고 할 정도로 경향 각지의 향우들까지 참석해 떠들썩하게 치러지던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때문이다.

아직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해남에서 외지 향우들까지 참석해 열려던 대규모 행사를 주민들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주민들 기억에 따르면 1945년 광복 때부터 시작한 광복절 행사가 열리지 못한 것은 6·25 전쟁과 1995년 대가뭄, 세월호 참사 등 3~4차례가 전부일 정도로 거의 거른 적이 없는 행사이다.

점토다위 속에서도 8월 15일 아침이면 화산초등학교에 모여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해 온 역사는 화산면민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화산면 주민들이 광복절을 맞아 화산초등학교에 모여 기념식을 하고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져왔다.

완도군·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시장 개척 '앞장'

초청 간담회...내년 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수출상담회 참가 제안

완도군이 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자 재외동포 경제인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유타·회장 하용화) 임원진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13~14일 이틀동안 진행됐으며, 이들은 완도군 농공단지 수출 기업을 방문하고 전 북·광어·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을 체험했다.

완도군과 월드유타는 1월 완도 원네스리조트에서 열린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간담회에서 완도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해양·문화·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자 우리나라 3대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68개국, 141개 지회에 7000여명의 월드유타 회원들에게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와 완도군 수출상담회 참가를 제안했다.

월드유타 임원진은 이날 완도 수산물 수출기업 3곳(다시마전북수산물영양조합법인, 흥일식품, 바다향기)을 차례로 방문했다. 기업별 주력 제품을 확인하고 선진화된 제조 공정과 시설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지난 13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을 초청,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광복절 75주년, 태극기 펼치며 해양영토수호 결의

서해해경...바다사랑 시 낭독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서남해안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해양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서해해경은 지난 13일 코로나19와 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광복절의 기쁨을 국민극복의 희망 에너지로 송화시키고자 태극기 펼치기 행사를 진행했다.

목포해경은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인 신안군 흥도 북서쪽 고서(高嶼) 앞 해상에서 1509함 40여 명의 경찰관이 태극기를 펼치며 해양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사진>

이날 1509함에는 해양경찰 명예홍보대사 명기환 시인도 참여해 '광복 75주년, 나라사랑 바다사랑'이라는 시를 지어 낭독하는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1509함은 소화포 훈련 등을 하며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서남해안에서 경비 중에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 10일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경 구조대와 민간구조협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수영하며 대형 태극기를 바다 위에서 이끌었다.

군산해경은 십이도파도 해상에서도 해경경비함과 고속단정 등이 바다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를 이끄는 해상 퍼레이드를 했다.



김도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해양주권 수호이기 때문에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은 우리 해경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해양안전을 확고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 LPG배관망 순차적 개통 지도 태천마을 시작으로 10곳

신안군은 지난 13일 지도읍 태천마을을 시작으로 군단위 LPG배관망을 구축하고 순차적으로 개통한다.<사진>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LPG저장시설과 지하배관망을 통해 LPG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LPG배관망사업에 193억을 투입, 지도읍 읍내리를 포함해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도읍 읍내리·LPG배관망 사업 대상 마을은 기존 LPG용기를 사용할 때보다 약 5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가스보일러, 금속배관 교체·가스경보기 설치 등으로 보다 현대화된 안전한 가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태천마을 LPG배관망 개통이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임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